

“아직도 소화제를 약국서 구입하세요(?)”

편의점서 소화촉진음료로 팔아 고객 호응 높아 안정성 확립된 일반 의약품 허용땐 매출급증 예상

“심야에 소화제를 못 구해 밤새 고생했다구요, 이전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보세요”

심야응급약국이 찾는 사람이 없어 애크를 먹고 있지만 24시 편의점에서는 음료란 이름으로 등간한 국내 제약사의 소화촉진제 판매가 활발하다.

심야응급약국은 지난 7월 19일 대한약사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범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 약 8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동구 3곳, 전남지역은 목포·순천·여수 각각 1곳씩 총 6곳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심야응급약국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 아니라 지역에 1개 있을까 말까 한 곳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려 찾아가기 힘든 실정이다.

한 지역의 심야응급약국은 5일 동안 진통제 하나를 팔았다는 등 당초 국민들이 야간에도 소화제, 연고제 등 일반의약품을 찾을 것이라 기대와 달리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심야응급약국수와 홍보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국에 24시간 운영 편의점은 1만 5천200개로 소비자들의 접근성으로 따지자면 약국에 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들이 간

편한 소화제를 복용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게 아니라,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편의점에는 제약회사 등이 개발한 소화촉진음료와 자양강장음료 등을 10종 이상 구비해 놓고 있다.

편의점에서 주로 구입할 수 있는 소화촉진음료는 광동제약 ‘위생천’, 대웅제약 ‘위사랑 에프’, 삼성제약 ‘허브명수’ 등이다.

이들 제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한 것은 의약품과 성분은 비슷하지만, 허가는 식품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 판매되고 있는 소화촉진음료들

은 일반의약품보다 성분 함량이 낮아 그 효과가 떨어지긴 해도,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과 달리 음료에는 유효성분의 규제가 없어 성분의 함량이 표기되지 않았지만 원료는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타사 제품들 도 이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동화약품 가스탈명수, 삼성제약 가스명수, 동아제약 박카스, 종근당 펜질큐 등 이미 안전성이 확립된 상당수 일반의약품은 유통판매가 허용되면 지금보다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news.com



“옛 추억이 살아 있는 백화점으로 놀러오세요”

광주신세계, 12일 200명 무료 포토 등 이벤트 마련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광장에 서는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추억의 백화점이 전시돼 명절을 맞아 가족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어릴적 엄마, 아빠가 다니던 교실, 엄마, 아빠가 즐겨먹던 간식과 놀이, 체험등을 전시한 1층광장은 오는 16일까지 전시되며 그 기간에는 선착순 200명에게 포토서비스 이벤트·음료서비스도 진행돼 옛 책상에 앉아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 있다.

연출했으며 남녀교복이 비치돼 관람객들이 직접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광주신세계 마케팅부서 최경식 대리는 “한가위를 맞아 어릴적 추억이 담긴 다양한 상품을 전시했다”며 “백화점을 방문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옛 향수에 젖을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출했으며 남녀교복이 비치돼 관람객들이 직접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광주신세계 마케팅부서 최경식 대리는 “한가위를 맞아 어릴적 추억이 담긴 다양한 상품을 전시했다”며 “백화점을 방문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옛 향수에 젖을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news.com

광주 U대회 전세불안 해소 나선다

LH, 내년부터 국민임대 6천800세대 공급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 광주·화정 주공아파트가 선수촌 등으로 재건축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들을 겨냥,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15년 광주 U대회를 앞두고 2천900세대 규모의 화정 주공아파트와 1천118세

대의 입주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내년부터 전세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6천800여 세대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과 내달에 양동지구 5년임대 716세대, 수완지구에 국민임대 1천942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주가 집중될 내년에는 백운·학2지구에 5년임대 1천632세대, 백

운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에 국민임대 5천264세대 등 총 6천896세대를 입주시키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사업지구는 5년임대 주택으로,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 백운지구와 11월 입주 예정인 학2지구다.

백운, 학2지구는 U대회 선수촌 예정지구인 화정·염주 주공아파트의 이주 시기와 맞아 떨어지고, 도심 내에 위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인 탓에 수요자가 몰려들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 학2지구는 전용면적 74, 84, 108㎡를 공급하며 85㎡이하 주택의 경우 광주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85㎡초과 주택은 광주시 거주 만 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각각 공급한다.

백운지구는 이달 중 모집공고해 10월 5일 접수 예정이고, 학2지구는 10월 중 모집공고해 10월 26일 접수 받는다.

국민임대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297만 원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지역본부(062-380-040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news.com

2천여 영세서민 지역희망금융보증 ‘혜택’

전남신보, 연4% 저리로 90억 지원 마무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의 올해 지역희망금융사업협약보증사업이 마무리됐다.

전남신보는 지역희망금융사업협약보증을 적극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한 연 4%의 저리자금 90억원을 지원, 2천여 영세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줬다고 9일 밝혔다.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지난 3월 17일부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사업자, 무등록·무점포사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와 협약에 따라 9억원을 지원받은 재원으

로 보증서 발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 특례보증을 통해 도내 새마을금고가 대출 취급한 저금리 소액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계연 전남신보 이사장은 “올해 종료된 지역희망금융사업의 급리인 하 효과는 3년간 약 16억원으로, 저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저리의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차남 기자 ocn@namdnews.com

“한가위 광주은행카드와 함께 가세요”

무이자 할부·주유소 리더당 100원 할인

광주은행이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광주은행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이 알뜰하고 풍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가위 애향(愛嚮) 큰잔치’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고객들의 고향 가는 길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추석연휴 전날인 이달 2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4일까지 광주·전남·서울·경인지역 S-Oil 주유소에서 주유시 리더당 100원의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달 10일부터 추석 전날인 21

일까지 전국 가맹점 어디서나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롯데백화점광주점과 현대백화점광주점에서 광주은행카드를 15만 원이상 결제시 생활용품, 30만 원 이상 상품 구입시에는 종합선물세트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카드사업부 오선탁 부장은 “광주은행카드를 사용해 나온 수익은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news.com

광주시민 “광주은행 지역자본 인수돼야”

한국공공데이터센터, 여론조사결과

광주시민들은 광주은행이 지역자본에 의해 인수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공공데이터센터(KPDC)가 지난 달 16~17일 이틀간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4.8%가 지역 경제 기여에 대한 가산점 등을 부여해 지역 연고를 우대하는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매수 가격만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9%에 그쳤다. 또 조사 대상자의 76.7%는 광주

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광주·전남 지역 상공인들의 주장대로 지역자본에 의해 인수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이들 중 39.2%는 광주은행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출자자를 모집한다면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가운데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31.1%였고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8.2%였다.

한편 광주시민의 은행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은 농협이 41.4%로 가장 많았고 광주은행 이용자는 37.5%였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news.com

건설공사 계약관련 민·관 워크숍 ‘성료’

전문건설 광주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광주시와 함께 9일 오전 10시30분 전남 나주 중흥골프스파&리조트에서 광주지역 공사발주부서 계약담당자 및 관계자, 회원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계약관련 민·관합동 워크숍’을 열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전문건설업체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설명 및 토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및 계약수법사례 ▲건설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중추건설업의 생존전략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news.com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 ◆ 취급차량 : 1t~12t
-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 ◆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 기업물류 운송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3 ☎ (062) 956-8500~2 / 956-2001 Fax. (062) 956-8501